

“의사 선생님들 잘 돌아왔소”...땀땀이·진료 대기 해소 기대

전공의 복귀 지역 수련병원 환자들 반응

의정갈등으로 의료 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지역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면서 지역 의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의료진 부족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응급실 땀땀이, 장시간 진료 대기 등 불편을 겪어 왔던 환자들은 “진료, 입원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 같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반겼다.

1일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는 진료 접수를 기다리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원무과 앞에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차 있었다. 각 병원 내에서는 이전과 달리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들이 5-6명씩 몰려 다니는 등 의료진의 수가 늘어난 모습이었다.

환자들도 “2년 이어진 전공의 파업이 드디어 끝난 모양이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직장암 수술 후 두달 여 병원 신세를 진 김현중(57)씨는 “지난해 말 직장암 0기 판정을 받았지만 의료진 부족 여파로 수술이 미뤄져 1기로 병이 악화됐다. 올해 6월과 8월 두 차례 수술을 받았고, 드디어 내일 퇴원한다”며 “수차례 진료·입원을 반복해왔지만 오늘처럼 병원이 활기를 띠는 건 손에 꼽는 일이다. 앞으로 지켜봐야 알겠지만 전공의들이 제자리를 찾았으니 진료를 기다린 많은 환자들이 차질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양장권(72)씨는 “지난해 다리를 다쳤는데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수술이 두 달 밀려 올해 초에 겨우 수술을 받았다”며 “전공의가 복귀했다고 하니, 이제 환자들의 수술이 밀리는 일은 없을 것 같아 다행이다”고 말했다.

일부 환자들은 그간 수술·진료가 밀리면서 피발리는 경험을 했던 만큼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마

전남대·조선대병원 환자들 몰려 수술·입원 부담 줄어들어 안도감 이제 차질없이 치료받을 수 있길 “기나긴 의료공백 힘들었다” 토로도 한숨 돌린 병원 “정상화 집중할 것”

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병원에 올 때마다 대기 시간이 길어 힘들었던 김영진(70)씨는 “환자들은 의료대란에 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 환자들의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라면서 무엇보다 환자들을 생각하는 법과 제도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덕호(62)씨는 지난해 초 암이 재발해 서울로 갔지만, 전공의 파업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광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서 씨는 “암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커져 위험해지는 시간 싸움인데 수술이 언제 잡힐까 발 동동 구르면서 기다리고, 결국 수술을 받지 못한 주변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봐서 질려버렸다”고 토로했다.

병원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조선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가 복귀하면서 병원 현장에서도 진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전반적인 병원 분위기는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고 차분한 분위기”라며 “우선은 병원 운영을 안정화하고 응급실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직 체계 재구성, 진료지원(PA) 간호사와 업무조정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대 정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1일 업무 현장에 복귀했다. 이날 광주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특히 전공의가 없는 1년 반 동안 의료공백을 메워온 PA 간호사와 전공의 간의 업무 범위 재조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 병원 관계자 설명이다.

병원마다 운영 방식은 다르지만 PA 간호사들은 수술 부위 드레싱,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시,

진단서 초안 작성, 피부 봉합 등 전공의들이 맡던 업무에 더해 의사의 고유영역인 각종 동시 설명, 심전도 검사, 상처 드레싱 등도 주도적으로 수행해 왔다.

전남대병원의 한 간호사는 “기존 PA 간호사들도 전공의들도 서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몰라 혼

란스러운 상황이다”며 “전공의가 복귀하는 첫날 입원 환자들이 급격히 많아져 혼란을 더하고 있다. 병원 측에서 업무분장에 대한 결론을 빠르게 내 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전남 공보의 204명 요청에 실제 배치는 71명

충원율 급락...지역 의료 위기 가속

전남 지역 공중보건조사(공보)의 충원율이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공보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체적인 공보의 수가 줄어든 여파로 의료 취약지인 전남까지 공보의 공급이 급감하고 있어 의료 공백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운(비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역 각 지자체는 올해 204명의 공보의 배치를 요청했지만, 실제 배치 인원은 71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충원율은 34.8%에 머물렀다.

공보의 배치는 매년 각 사·도가 필요로 하는 공보의 수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가 이를 바탕으로 신규 입영한 공보의를 시도별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배치된다.

최근 5년 동안 전국 공보의 충원율은 2020년

86.2%, 2021년 78.3%, 2022년 65.2%, 2023년 47.7%, 2024년 27.9%, 2025년 23.6% 등으로 떨어졌다.

전남의 경우 2020년 공보의 108명을 요청, 137명 충원돼 충원율이 126.9%에 달했지만, 올해 들어 34.8%로 떨어지면서 하락폭이 92.0%에 달했다.

이는 인천(2020년 충원율 287.5%→2024년 64.7%, 하락폭 222.8%), 울산(100%→0%, 하락폭 100%)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낙폭이다. 다만 인천과 울산은 공보의 요청 인원이 각각 34명, 5명에 그쳐 수요 자체가 많지 않았던 만큼 의료 공백이 전남만큼 심하지는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의원은 “공보의 충원율이 급락하는 것은 지역 의료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다”며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정부와 국회가 본격적으로 의논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지원도 턱없이 부족

전남 24명 모집에 8명 지원

정부가 의료 취약지의 필수의료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했지만, 정착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인 전남 지역에 지원한 이는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구 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남 지역에서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24명의 전문의를 모집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30% 수준인 8명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전문의 자격 취득 5년 이내의 젊은 의사들이 일정 기간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겠다고 계약을 맺으면, 정부와 지자체가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숙소와 주거비를 지원하며 의료기술 연찬활동 및 해외연수 지원, 진료성과급 지급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는 국비 13억 5200만원을 들여 전남과 강원·경남·제주 등 4개 사·도 17개 병원에서 내과, 외

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 전문의 96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전남 지역에서는 목표한 국병원 6명, 목포시의료원 6명, 성가톨릭병원 6명, 순천의료원 6명 등 총 4곳 24명에 대해 모집했다.

전남은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나, 한달여가 지난 지난달 18일 기준 전남 지역 지원자는 8명(목포한국병원 6명, 성가톨릭병원 2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지원율은 경남 19명, 강원 15명, 제주 14명 등 타 지역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

앞서 전남은 올해 보건복지부의 ‘시니어 의사’ 사업에 이어 ‘치매관리주치의’, ‘공공심야약국’, ‘취약지간호사 장학생’ 등 여러 사업을 도입했다가 지원자 부족으로 좌초된 바 있다.

최은창 전남도의사회장은 “젊은 의사에 연연하지 말고 계약 조건을 완화하고 병원 선택지를 폭넓게 하며, 정주여건 등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는 등 의사들이 찾아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금형 가공 작업장 폭발사고 광산구서 일하던 50대 사망 인근 공장·차량도 일부 파손

광산구의 금형 가공 작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0대 작업자가 숨졌다.

1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의 금형 가공 작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장 내부에 있던 50대 작업자 A씨가 숨졌다.

또 조립식 패널 건물 일부가 무너지고 폭발 파편이 튀어 작업장 인근 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 3대와 맞은편 공장 2곳이 일부 파손됐다.

사고가 난 곳은 A씨가 운영하는 1인 작업장으로, 사고 직전 A씨는 작업장 내에서 홀로 일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폭발 원인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